

LOCAL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완도, 테마별 관광지 ‘치유의 예술 섬’ 조성

신안 ‘섬 갠다리축제’ 개최
23~24일 입자도 틀립정원

신안군은 전국 최장 12km의 대광해변과 홍매화의 섬으로 이름난 입자도 틀립정원에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 6회 섬 갠다리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산물 중 하나인 갠다리는 지난해 축제 기간 완판을 기록했다. 올해도 직거래 판매장과 갠다리튀김, 조림 등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계절음식점 운영 외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입자도 전장포는 예부터 갠다리(갠달어, 황새기)로 이름났고 1970년대에는 파시(어시장)가 형성될 정도였다.

갠다리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서민의 영양식으로 각광받았으며 현재도 김장용 젓갈, 조림, 튀김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소비된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4월 도초도 간재 미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11종의 계절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행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세한대·동아보건대 협약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 수형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보건소에서 세한대, 동아보건대 간호학과와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포터즈는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감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주민참여형 단체로, 관련 분야에 사전지식이 있고 평소 SNS 활용을 자주하는 간호학과 대학생이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으로 지역민에게 감염병예방 인식 제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나선다.

서포터즈는 협약에 따라 감염병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다음 7~12월 본격 활동에 나선다.

특히 감염병 예방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역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참여 등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서포터즈 활동에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감염병 위험성과 예방법을 학습하고 홍보함으로써 전문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130억...노화읍·보길면에 섬 미술관 등 구축
신우철 군수 “예술·문화·역사 콘텐츠 개발”

완도군이 전국 선도의 해양치유를 예술과 접목한 섬 개발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민관 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 ‘완도 치유의 예술 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조성사업은 1980년 완도군 노화읍에 설립됐던 대우병원을 시작으로 4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대우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도비, 군비 포함 100억원과 대우재단의 30억원 등 총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완도 치유의 예술 섬’은 오는 2028년까지 4개년간 노화권역을 대상으로 조성

되며, 5개 사업, 9개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

5개 사업은 수준 높은 ‘섬 미술관’ 조성, 노화·보길 지역 공가·폐가 활용 ‘예술 가옥’ 조성, 예술 작품 설치·전시 완도 섬 전체를 예술로 잇는 ‘섬 예술제’ 개최, 주민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이끌 ‘미술관 도슨트 양성’과 예술 마켓 운영, ‘치유의 섬’ 관광 콘텐츠와 ‘예술 섬 프로젝트’ 결합 관광 여행 패스 등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군은 기(氣), 소리, 경관, 문화, 역사, 예술 등 섬마다 지닌 치유자원을 특화해 완도 전역을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완도군은 국토교통부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사업 공모에 ‘완도 치유의 예술 섬’ 조성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은 완도 섬 미술관 건립 예정 부지 모습.

섬’으로 조성 중이다.

군은 대우재단과 노화읍을 ‘예술 치유’ 지역으로 조성해 일본의 나오히마처럼 세계적인 예술 섬으로 키워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섬 미술관’의 경우 2017~2021년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역임한 대우재단 부속 아트선재센터의 김선정 감독이 직접 참여해 전시 콘텐츠를 기획·관리하고 작가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노화·보길 권역이 예술·문화·역사 치유의 등대가 될 것이다”며 “완도 전역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 치유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군과 대우재단 관계자의 덕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 원을 투입, 세계적인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해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 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24년부터 대우병원 직원 기숙사를 ‘마음치유센터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마음치유센터 전시관’과 더불어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섬 미술관’이 조성되면 ‘치유의 예술 섬’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송강정실에서 공약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공약 이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활력도시 담양 건설’ 민선 8기 공약 본격화

세부실천계획 등 심층보고회

담양군은 최근 송강정실에서 군민과의 첫 번째 약속 실현을 위한 공약 세부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공약 이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 실현을 위한 공약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군수가 전 부서의 공약 이행계획을 1대 1로 직접 점검하는 심층 보고 형식으로 이어졌다. 부서별로 순차 임장에 소관 공약의 세부실천계획을 간결하게 보고하고, 군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

정철원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민선 8기 담양군정의 책임 있는 출발점이다”며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나주, 역사·문화·생태 특화거리 활성화 도모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등 연계 11월 첫 삽

나주시가 역사·문화자원과 생태 경관을 아우르는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있는 거리, 쾌적한 보행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는 나주읍성 문화유산과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 국가 유산 경관개선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 생태 자원, 주민 생활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관 특화거리 조성에 나선다.

조선시대 객사, 지방 궁궐 기능을 했던 금성관과 전국 최대 규모 향교 건물인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아 등 문화유산, 나주천 생태물길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특화 디자인을 발굴해 공공시설물과 주민 편의 시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읍성 따라 피어나는 하화담길’을 테마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특화 심터, 능소화 터널 및 돌담, 경관조명 설

치와 보행로 및 간판 정비, 가로등·벤치·승강장·안내표지판 등 공공 편의·휴게 시설물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주민, 전문가 협의체 등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천 생태물길, 나주읍성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유성과 상징성,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전번 특화 거리를 조성, 걷고 싶은 나주를 완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5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화순 청년카페 ‘청춘오름’ 탈바꿈

네트워크 형성·정착 강화

화순군 청년카페 ‘청춘오름’이 청년들에게나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대변신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청년카페 ‘청춘오름’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는 청년의 일상 유지 및 1대 1 초기상담과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청년이 놀고·먹고·쉬어가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 추가 조성해 청년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정착을 유도하는 기능으로 탈바꿈한다.

청춘오름은 청년하우스 1층에 운영 중으로 청년 감성을 담은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당초 스터디 카페인 공간을 독서·스터디·소규모 모임 공간으로 변경하고, 매주 주간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주간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토론 모임(월요일), 일상 속 탈출 이색 대회(화요일), 영화감상(수요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주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QR 접속 및 고용 24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